

# 세계유산 '직지' 읽어 보셨나요?



직지  
동국대역경원 옮김  
조계종출판사 | 2만원

## 조계종, 우리말 번역본 출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전시

써 2001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평가 외에 <직지>의 내용을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그동안 출간된 <직지> 해설본은 각종 스님의 번역본(1999년, 현음사)과 박문 열씨의 번역본(1998년, 범우사)을 비롯 몇몇 권에 불과하며 그마저 이제 시중에서 구하기도 쉽지 않다. 왜 우리는 <직지>의 세계적 우수성은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노력은 등한시 하지 않았을까?

조계종출판사가 펴낸 우리말 번역본 <직지>는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영문판과 함께 전시돼 주빈국으로서의 면목을 세우는데 일조했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직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한 책이라 평할 수 있다.

동국대 역경원의 번역으로 선보인 우리말 <직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어떤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청했다. "제가 총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 스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 선사가 물었다. "죽은

먹었느냐? 아직 먹지 못했느냐?" "먹었습니다." 조주 선사는 말했다. "그러면 밥을 씻겨라." 그 스님은 크게 깨달았다. (55조 '조주 종심' 편 중에서)

이처럼 <직지>는 <경덕전등록> <선문연승> <오동회원> 등 여러 불서(佛書) 중에서 선의 요체(要諦)를 깨닫게 하는 계(僞), 송(頌), 찬(讚) 등을 가려 엮은 것이다. 백운 화상은 수행자들을 위해 "일체의 사심과 망념에서 떠난 심원 마음을 증시하는 무심무념을 궁극의 경지로 삼은 자신의 선풍(禪風)을 펼치기 위해 이 책을 편찬했다"고 밝

히고 있다.

'환산하여 사람의 마음을 직시(直視)하면, 그 심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에서 그 이름을 딴 <직지>. 우리말 번역본 출간을 계기로 <직지>가 오늘날의 수행자와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마음을 일러주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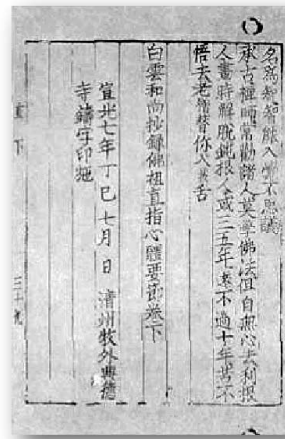
조계종출판사는 우리말 <직지>를 1,000여 부 한정 판매할 예정이다. (02)2011-1880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 직지는 어떻게 해외로 반출되었을까?

<직지>는 조선시대 고종 때 주한 불란서대리공사로 서울에서 근무했던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가 수집한 후 골동품 수집가였던 앙리베르(Henry Veber)에게 넘어갔으며, 그가 1950년에 사망하자 유언에 따라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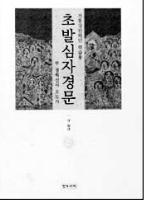
이 책은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하권만이 유일하게 프랑스에 소장되어 있다. 하권은 3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 장은 없고 2장부터 39장까지 총 38장만이 보존되고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직지>를 우리나라에 장기임대, 전시하는 것은 물론 일반에 공개하는 것조차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단체들이 '직지 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유다.



직지 원본

### 새로나온 책

■ <초발심자경문>(일후 스님 옮김, 정우서적, 7천원)=초심 수행자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초발심자경문>을 일후 스님이 우리말로 옮겼다. <초발심자경문>은 보조국사의 <계초심학인문(敎初心學人文)>, 원호 스님의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아운 선사의 <자경문(自警文)>을 묶은 책으로 오늘날 강원의 필수교재로 쓰이고 있다. 일후 스님은 "수행자는 지식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실천행을 통해 지식을 체득하는 자"라며 "오늘날 지식과 정보의 양은 넘치지만 정자 <초발심자경문>에 발목을 잡지 않을 이는 드물 것"이라고 출간 의의를 밝히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스님은 지난 3월 전통강원 강산 강숙을 개원해 강주를 맡고 있다.



■ <집으로 가는 길>(양문규 시집, 시와에세이, 7천5백원)="보살이 부처에게 아침저녁/ 공양 올리듯/ 천 년하고도 수백 년/ 황금가지 잎새의 반짝임으로/ 소신 공양하는 은행나무/ 아직 풀아 정진 중이다"("보석사" 전문) 양문규 시인(대전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의 세 번째 시집. '에기 똥풀'이나 '불까치꽃' '쇠뿔구리' 등 시 제목만으로도 도시에서 느끼기 힘든 자연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지난 2002년 펴낸 시집 <영국사에는 범종이 없다>에 등장했던 '영국사'는 이번 책에도 시심(詩心)의 근저를 이루고, 쌍봉사·운주사·화암사 등을 오르는 시인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문학평론가 오태호씨는 "양문규 시인의 시에 등장하는 풍경은 자기화된 풍경이기에 곧 사유의 풍경이라 할 수 있다"고 평했다.



■ <한국의 인쇄문화>(박종일 지음, 한국인쇄문화원, 10만원)=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장과 한국인쇄문화원장, 한·중 인쇄기술 교류협정 한국대표, 범국민직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위를 힘써온 박종일 회장이 인쇄문화의 역사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 등을 담은 책.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보림인다라니경> 등 고인쇄문화의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과 인쇄문화사 연표, 박 회장이 그동안 언론·학술세미나 등에서 발표한 글 등을 엮었다.



# 숲에서 희망찾기



월경사 전나무 숲길

'숲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다' 전영우·탁광일 국민대 산림자원학과 교수와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대표 외 국내 굴지의 숲 전문가 21인의 이구동성 외침이다. 그들이 각자의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시각으로 숲을 이야기한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제목은 그들의 강한 슬로건인 <숲이 희망이다>이다.

이 책에서 지은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숲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공간이라는 것.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점점 파괴해져 가는 '인간의 정체성'을 숲에서 되찾자는 생각에서다.

책은 단순히 수필적 성격을 지양한다. 교수, 생태운동가 등 다양한 명함을 가진 23인은 각자의 전문지식을 총동원해 깊이있고 분석적인 숲 이야기를 펼친다. 숲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지식, 그와 더불어 숲을 살려 인간의 삶을 가꾸자는 발원이 실득력 있게 다가온다.

덕이 숲의 태동과 문명의 박해로 인한 수난, 숲 속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온갖 동식물, 세계사적 시각으로 바라본 숲의 현황 등 지은이 각자의 전공에 따른 다양한 숲 이야기가 간결하고 단순

한 문체로 정리돼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이 친근하게 여겨지는 것은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 숲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이다. 지은이 중 한 명인 탁광일 교수는 "소나무와 참나무가 주를 이루는 우리의 숲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싱그러움 우리만의 숲"이라고 강조한다.

생태운동가인 김재일 대표도 책의 말미에 숲속의 절집을 소개하며 "부처님 당시부터 수행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자신들의 집을 짓기 위해 숲을 결코 해치지 않았다"며 "절집의 숲을 훼손하는 것은 삼보를 훼손하는 것과 같이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jkim@buddhapia.com



숲이 희망이다  
탁광일 외 지음  
책세 | 1만7천5백원

## 태고 스님의 생애와 사상

태고보우 국사(1301~1382)는 한국불교의 초조이자 종조이며, 중흥조로서 왕사와 국사를 역임한 한국불교의 큰 선지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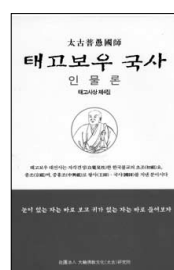
태고보우 국사는 신라 삼국통일 직후에 주류를 이뤄왔던 타락적 경향의 미타신행에서 벗어난 자력적 미타신행을 주장했는데 그 정도 자체를 마음에서 구하는 스님의 해석은 당시 몹시 호응을 얻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임제종의 전법을 강조, 간화선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임제종의 간화선풍을 도입, 한국적인 선사상을 확립했던 보우 스님의 법맥은 당시 고려불교를 꽃피우고, 환암 단수를 거쳐 서산과 사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스님의 사상적 전통은 오늘날까지 면면히 전승돼 제방에서 공부하는 선승들의 눈을 밝혀주고 있다.

(사)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 태고보우 국사 탄신 704년을 기념해 태고보우 국사의 사상과 법통을 재조명한 <태고보우국사>를 펴냈다. 이 책은 1부 탄생과 출가, 2부 수행과 오도를 비롯해 태고의 선지와 선종, 보우의 법통과 열반 등 총 9부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책은 국사의 생애와 사상은 물론 선종, 법통, 국사와 관련된 논문, 문헌자료 등이 6백페이지 분량에 총 망라돼 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태고보우국사  
서무공 지음  
대한불교  
문화태고연구원  
2만5천원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세계 최대의 공인된 선문명승!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문계현 선사님이 역적한 <마로보인 선문명승>

전30권중 제7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책도 빠짐없이 펴내고, 송하여 공인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http://www.zenparadise.com)

# 성명서

## 왜 이시기에 불교계가 도덕적 손상을 입어야 하는가?

서울의과속환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피해 사찰인 도봉산 흥법사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지난 2002년 8월 14일 서울고속도로(주)는 해당사찰과 어떠한 협의 없이 공사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6일 서울의과속환도로 제4공구의 건설이 재개되었다. 서울고속도로(주)가 합의사항을 어긴 것이다.

흥법사가 도로건설로 인한 사찰부지자 수용 당하는 등 직접적 피해를 입는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사찰이전 협의의무를 무시한 채 간접 이해당사자인 회법사와 협의를 실시하였고, 흥법사에는 어떠한 합의사항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31자 중앙 일간지 사회면에 "사패산터널 보상금 10억 전용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서울고속도로(주)는 직접 피해사찰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으면서도 간접 이해당사자와 먼저 협상한 것은 어찌구무없는 획책이라고 본다. 그리고 20억이라는 돈으로 불교단체와 환경단체를 무마하기 위한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2002년 8월 14일 작성된 합의서에는 불교환경연대, 의정부 사·암 연합회 대표 그리고 서울고속도로(주) 대표이사, 한국도로공사 기술본부장까지 연서하였으며, LG건설 대표이사, 조계종 총무부장까지 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이러한 합의사항대로 대표성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흥법사를 합의에서 배제시킨 저의가 어디에 있겠는가? 서울의과속환도로공사의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볼 때 직접 이해 당사자인 흥법사와 이러한 문제를 우선 논의 해야 했다.

또한 흥법사의 사찰부지 175평이 아무런 협의 없이 무단 등기이전 하여 사찰 토지를 빼앗아 갔으며, 그림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을 위해 양보하고 인내하며 지금까지 참아왔다. 건설교통부나 서울고속도로(주)는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공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소로 나와야한다. 또한 흥법사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비슷한 지역의 도봉산 자락에 사찰 이전을 요구하여 왔다.

지난 26일 4년여 만에 제4공구 흥법사가 위치한 공사구간에서 공사가 재개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앞서 밝힌 언론보도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간접이해 당사자의 취약한 부분을 언론에 공론화함으로써 흥법사의 입장을 무력화 하는 동시에 환경단체와 불교단체를 농락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수행환경 피해를 이유로 보상금 10억원이 건네졌다는 보도는 의도적 속셈을 드러낸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흥법사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평가절하 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흥법사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 단지 적당한 장소로 이전을 요구했을 뿐이다. 국책사업에 동조하기위해 현재의 자리를 떠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언론의 보도를 이용하여 불교를 왜곡, 폄하하거나, 흥법사를 무력화 시킨다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각 계의 언론 보도로 인해 불교계 전체가 도덕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흥법사와 연관지어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서울고속도로(주)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흥법사를 기필코 지켜낼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도봉산 흥법사 수호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지 섭